

(2018. 10. 13 시행) 지방직 7급 기출문제 [경제학(A책형) 해설]

[김영식 선생님]

제일고시학원 본점(충남대앞)중앙로점 www.okpass.com

1. 정답 ②

현금통화비율(c)이 주어진 경우의 통화승수

$$m = \frac{M}{H} = \frac{M}{C+Z} = \frac{1}{c+z(1-c)}$$

$$[M = C+D, H = C+Z, c = \frac{\text{현금통화}(C)}{\text{통화량}(M)}, z = \frac{\text{실제지준금}(Z)}{\text{예금통화}(D)}]$$

- 1) 지급준비율(z)상승 → 통화승수(m) 감소 → 통화량(M) 감소
- 2) 현금통화비율(c)증가 → 통화승수(m) 감소 → 통화량(M) 감소
 - 통화승수(m)와 통화량(M)은 지급준비율(z)과 현금통화비율(c)의 감소함수
 - ㄱ.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 대비 초과지급준비금이 낮아졌다. → 통화량(M) 증가
 - ㄴ. 사람들이 지불수단으로 요구불예금보다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 통화량(M) 감소
 - ㄷ. 시중은행이 준수해야 할 요구불예금 대비 법정지급 준비금이 낮아졌다. → 통화량(M) 증가

2. 정답 ③

경제학적비용은 기회비용의 개념으로 사용하므로 각 아파트의 비용은 월별 통근시간의 기회비용과 아파트 월별 임대료의 합이므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아파트가 최적이다. 따라서, C아파트가 145만원으로 가장적다.

3. 정답 ①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따라서 ① 자국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온 재화의 양은 국내생산이 아니므로 국내총생산(GDP)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정답 ④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이윤극대화 조건은 P=MC이고 고정비용은 MC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올해의 생산량은 전년과 동일하다.

5. 정답 ②

균형국민소득을 계산하여 구하는 방법보다 승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더 유리하므로

- 1) 투자승수: $\frac{dY_E}{dI_0} = \frac{1}{1-c} = \frac{1}{s}$ $c=0.75$ 이므로 $\frac{dY_E}{dI_0} = \frac{1}{1-0.75} = 4$ 따라서 투자가 20만큼 증가하였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은 4배인 80만큼 증가.
- 2) 정부지출승수: $\frac{dY_E}{dG} = \frac{1}{1-c}$ 마찬가지로 정부지출도 20만큼 증가하였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은 4배인 80만큼 증가.
- 3) 조세승수: $\frac{dY_E}{dT} = \frac{-c}{1-c} = \frac{-0.75}{1-0.75} = -3$ 따라서 조세가 50만큼 증가하였으므로 균형국민소득은 -3배인 150만큼 감소
 그러므로 1), 2), 3)을 모두 고려하면 $80+80-150=10$ 만큼 증가한다.

6. 정답 ④

파레토 효율적인 배분이란 한 배분상태에서 다른 배분상태로 이동할 때 구성원 누구 하나의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한 명의 후생을 감소시켜야 하는 상태 즉,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배분상태를 파레토효율적인 배분상태라 한다.

따라서 $x+y=150$ 을 만족하는 모든 배분에서 성립한다.

한편, 공리주의적 배분상태는 $\sqrt{x} = 2\sqrt{y}$ 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양변을 제곱하면 $x = 4y$ 이므로 $x = 30, y = 120$ 이다.

7. 정답 ①

<등가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 1) 경제활동인구(조세부담을 지는 경제주체)의 증가율이 0%이어야 한다.
- 2)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이어야 한다.
- 3) 정부는 정부지출수준이 일정하고 항상 균형재정을 준수한다.
- 4)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동일하다는 완전자본시장가정이 성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론으로 옳은 것은

- ㄱ. 소비자들은 합리적이지 못한 근시안적 단견을 갖고 있다.
- ㄴ. 소비자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차용제약이 있다.

8. 정답 ③

완전경쟁시장의 개별기업의 공급곡선은 MC곡선이므로

$$MC = \frac{dTC}{dq} = 2q \quad \text{즉, } p=2q \text{이므로 } q = \frac{p}{2} \text{이고 시장공급함수는 개별기업의 수평(수량)합이므로}$$

$$q = \frac{p}{2} \text{을 100배하면 } Q = \frac{p}{2} \times 100 = 50q \tex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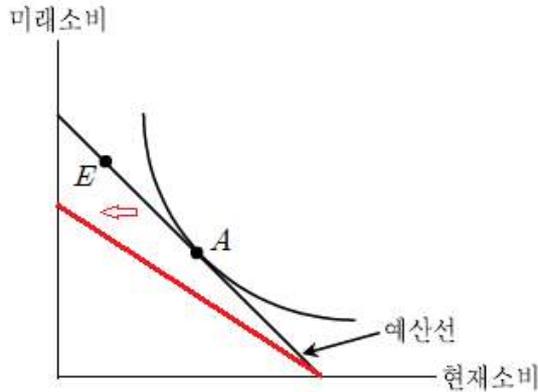
9. 정답 ①

< 시점 간 소비자선택이론의 효용극대화 조건 >

- (1) 효용함수 : $U = U(C_1, C_2)$ (현재소비 C_1 , 미래소비 C_2)
- (2) 소비자균형조건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rightarrow MRS_{12} = 1 + r \leftarrow$ 예산선의 기울기

따라서 실질이자율(r)이 하락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작아져 다음 그림처럼 이 소비자의 효용은 감소한다.



10. 정답 ③

- 테일러 준칙(Taylor rule)식에 의해 %p는 증가분의 단위이므로
- ㄱ.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1%p 증가하면, 증가된 부분만 계산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율을 $(1 + \alpha) \%p$ 올려야 한다. (O)
 - ㄴ. t기의 실업률이 1 %p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이자율을 $\beta \%p$ 낮춰야 한다.(X)
실질이자율은 명목이자율-인플레이션율이므로
 - ㄷ.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인플레이션율과 같고 t기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으면, t기의 실질이자율은 ρ 와 같다. (O)

11. 정답 ③

15세 이상의 인구(A)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취업자(D)	실업자(E)

1) 경제활동참가율

15세 이상의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B+C} \times 100(\%)$$

2) 실업률 (unemployment rate , 失業率)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text{실업자수}(E)}{\text{취업자수}(D) + \text{실업자수}(E)}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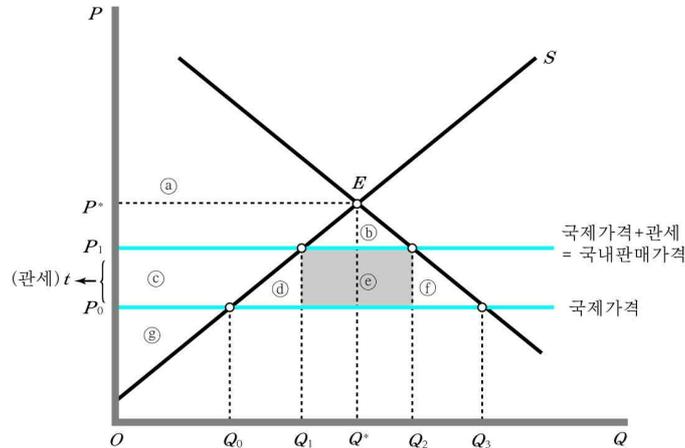
15세 이상의 인구(A) : 1600만		
비경제활동인구(C) (주부, 학생, 환자, 군복무자, 실망노동자 등)	경제활동인구(B): 1,200만	
	취업자(D)	실업자(E): 100만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15세이상의인구}} \times 100 = \frac{B}{A} \times 100 = \frac{B}{1600\text{만}} \times 100(\%) = 75(\%)$$

그러므로 경제활동인구(B)는 1,200만명이다.

$$\text{따라서 실업률} = \frac{\text{실업자수}(E)}{\text{경제활동인구}(B)} \times 100 = \frac{100}{1,200} \times 100 \approx 8.33(\%)$$

12. 정답 ㉔



<수입국의 관세부과 후 효과 (소국모형:국제가격이 불변)>

관세가 t원 부과하면 국내가격은 $P_0 + t = P_1$ 이 되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 1) 국내생산 증가효과 : $OQ_0 \rightarrow OQ_1$
- 2) 국내소비 감소효과 : $OQ_3 \rightarrow OQ_2$
- 3) 국제수지 개선효과 : 수입이 감소 $Q_3 - Q_0 \rightarrow Q_2 - Q_1$
- 4) 재정수입 증대효과 : 관세로 인한 수입 ㉔
- 5) 소비자잉여 감소효과 : 소비자잉여가 ㉑+㉒가 되어 ㉑+㉒+㉓+㉔ 만큼 감소
- 6) 생산자잉여 증대효과 : 생산자잉여가 ㉑+㉒가 되어 ㉑ 만큼 증가
- 7)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효과 : 총잉여의 감소로 인하여 ㉒+㉔ 만큼 감소

- 따라서
- ㄱ. A국의 생산량은 증가하고 정부의 관세수입이 발생한다. (O)
 - ㄴ. A국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 잉여는 증가한다. (X)
 - ㄷ. A국에서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O)

13. 정답 ④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

1) 개념

보험회사에서 사고 또는 발병 발생확률을 근거로 보험료를 산정하면 사고(발병) 발생확률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2) 해결방안

- ㉠ 선별(screening)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건강진단서를 요구.
- ㉡ 강제보험(집행) :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강제보험.

14. 정답 ④

1) 영국식 경매(English auction)

통상적인 경매방법으로서 매수호가자들은 그들의 호가를 자유롭게 상향조정할 수 있으며 아무도 그들의 호가를 높이려 하지 않을 때 최고호가 자가 경매물건을 매수하게 되는 경매. 최고가 구두호가경매라고도 한다.

2) 네덜란드식 경매(Dutch auction)

경매물건의 매도자가 전량을 팔 수 있는 수준까지 매도호가를 점차 낮추는 경매방법. 모든 경매는 이 일정한 가격에 이루어진다. 미국의 재정증권은 이 경매방법과 유사한 제도에 의해 매각되는데 최고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경매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경락자로 한다.

3) 수입등가정리(Revenue equivalence theorem)

일정한 가정 하에서 영국식 경매, 네덜란드식 경매, 비공개 최고가 경매, 비공개 차가 경매의 판매자 기대수입이 모두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정답 ②

< 이자율 평가설(interest rate parity theory)의 개요 >

- 1) 이자율평가설은 국가간 자본이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국내에 투자하건 외국에 투자하건 그 자본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 2) 이자율평가설은 환율이 두 나라간 명목이자율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frac{\Delta e}{e} \approx r - r^f$$

환율변화율 = 국내이자율 - 미국(외국)이자율

따라서 환율변화율 = 국내이자율(21%) - 일본(외국)이자율(10%) ≈ 11(%)

상기 식이 근사값을 계산한 식이므로 가장 가까운 값을 구하면 10%상승한 ② 1,100원/100엔

16. 정답 ③

구매력 평가설(purchasing power parity theory: PPP)의 개요

- 1) 구매력 평가설이란 양국의 구매력인 통화가치가 같도록 환율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 2) 즉, 환율은 양국통화의 구매력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이론으로 양국의 물가상승률의 차이가 발생하면 이는 통화의 구매력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환율이 변동하게 된다.

3)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면 $e(\text{명목환율}) = \frac{P}{P_f}$ 이 성립하므로 실질환율(ϵ) = $\frac{e \times P_f}{P} = \frac{\frac{P}{P_f} \times P_f}{P} = 1$ 이다.

17. 정답 ② ※ 알기 쉬운 풀이는 좀 더 연구 중임

	수요함수	공급함수	균형
A기업			
잔여기업	()	$S = 200 + p$	
전체기업	$D = 400 - p$		(,)

18. 정답 ①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成長會計]>

1) 성장회계의 개념

노동과 자본 등 각 요소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상대적 크기를 비교함으로써 경제성장에서 어떤 요인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는 것

(2) 가정

한 경제의 총체적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은 콥-더글라스(Cobb-Douglas) 함수라고 가정한다.

$$Y = AF(L, K) = AL^\alpha K^\beta$$

(A:기술계수 >0, 0 < α , 0 < β)

(3) 경제성장을

위의 함수를 변화율로 나타내기 위해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frac{\Delta Y}{Y} = \frac{\Delta A}{A} + \alpha \frac{\Delta L}{L} + \beta \frac{\Delta K}{K}$$

(4)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總要素生産性 : TFP)

1) 위의 식에서 $\frac{\Delta Y}{Y}$ 와 $\frac{\Delta L}{L}$, $\frac{\Delta K}{K}$ 는 모두 구체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

반면 $\frac{\Delta A}{A}$ 로 표현 되는 생산성 증가율은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렵다.

2) 따라서 일반적으로 성장회계는 경제성장률에서 총요소(자본+노동)투입 성장률을 뺀 나머지 부분을 잔여항(residuals)이라 부르고, 이를 생산성 증가율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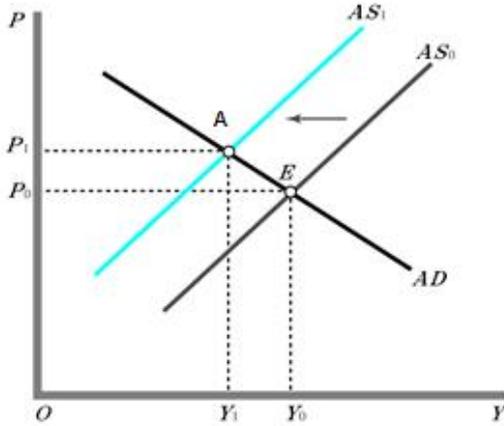
$$\frac{\Delta A}{A} = \frac{\Delta Y}{Y} - \alpha \frac{\Delta L}{L} - \beta \frac{\Delta K}{K}$$

생산성 증가율로 표현되는 $\frac{\Delta A}{A}$ 에는 요소투입 이외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인 산업구조의 변화, 경제제도 및 문화, 사회관습 등이 모두 포함된다.

3) 이를 총요소 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라 하며 또한 이러한 분석을 솔로우(Solow)가 최초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솔로우 잔차(Solow residual)라고도 한다.

$$\frac{\Delta A}{A} = \frac{\Delta Y}{Y} - \alpha \frac{\Delta L}{L} - \beta \frac{\Delta K}{K} = 5(\%) - \frac{1}{3} \times 3(\%) - \frac{2}{3} \times 3(\%) = 2(\%)$$

19. 정답 ④



- ➡ 최초균형점 E점 : (Y_0, P_0)
- ➔ 임금인상 · 이윤인상 · 공급충격
- ➔ AS곡선 좌상방이동($AS_0 \rightarrow AS_1$)
- ➔ 새로운 균형점 F점
- 물가상승($P_0 \rightarrow P_1$: 인플레이션)
- 산출량감소($Y_0 \rightarrow Y_1$)
- ➔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정부지출을 늘리면 AD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므로 A점의 물가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

20. 정답 ③

<일반적인 교환방정식>

일반적으로 교환방정식의 거래량(T)는 국민소득(Y)에 비례하므로

$$MV = PY$$

← 일정기간의 명목 거래액
→ 일정기간의 명목 국민소득

(M은 통화량, V는 화폐유통속도, P는 물가, Y는 실질국민소득)

$MV = PY \Rightarrow 5,000\text{억} \times V = 10\text{조} \quad \therefore V\text{는 } 20\text{이다.}$